

‘전통과 첨단’의 조화’ 로운 발전 성균관대학교

심윤종 | 성균관대 총장

건학이념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근본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교시를 실천에 옮기며

성균관대학교(SKKU/www.skku.ac.kr)는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자기 완성과 인류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기치인의 유학(儒學)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있다.

교시인 인의예지는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교육이념이자 치세철학인 유교의 근본정신을 말해 주고 있는 기본 개념이며, 인간이 본래 가지는 마음과 행동과 옳음과 슬기의 본질을 나타내 주고 있는 4가지 덕목이다.

성균관대학교(이하 SKKU)는 위와 같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창건 이래 600여 성상을 민족사의 성쇠와 부침을 같이 하면서 남다른 역사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VISION 2010’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한 새로운 시대 개척과 성과들

‘VISION 2010’은 SKKU의 분명하며 결연한 세천년 구상이다. 삼성그룹을 제단으로 영입한 1996년과 때





를 같이해 SKKU의 새 천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바탕으로 1997년부터 1년여 동안의 지난한 준비 끝에 탄생한 'VISION 2010'은 21세기 도약의 기본원칙과 좌표를 정한 SKKU 전 구성원 스스로의 다짐이자 대외적인 약속이다.

SKKU의 비전은 '전통과 첨단'의 조화이다. 600년 유구한 역사에서 정제된 예지로 전통과 첨단을 접목시켜 21세기 대학의 주역으로 응비한다는 관점에서 발전이념을 '전통과 첨단'의 조화로 설정한 것이다.

'VISION 2010'의 핵심은 교수발전, 교육혁신, 행정개혁과 최적 인프라 구축의 4개 부문, 58개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진 교육 시스템 확립, 선택과 집중의 특성화 정책, 선도적 대학경영을 통해 세계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우수한 구성원 그리고 최고의 인프라

SKKU의 최근 두드러진 변화는 본교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듯 시설 인프라의 발전이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인적 구성원들의 변화상을 확인한다면 더 크게 놀랄 것이다. 연마된 재능과 창의성을 갖춘 21세기형 학생, '한번 교수는 영원하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과감히 벗어던진 교수진, 고객만족 행정을 몸소 익혀 나가

는 교직원. 최신식 건물이 성균관대의 교정을 순차적으로 바뀐 나가듯 본교의 전 구성원 또한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 변신에 열심이 많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인프라 부문은 SKKU가 그 동안 타 대학에 비하여 취약했던 부문임에는 틀림없다. 재단영입과 동시에 시급히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크게 시설·정보·재정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가시적인 성과로 첨단의학의 산실로 활용될 의학관, 새로운 21세기 한국학·동아시아학의 메카로 성장할 구심점인 600주년기념관, 국내 최초이며 최고인 MBA(경영전문대학원)가 입주한 경영관 등이 이미 그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IMF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고진감래를 교훈 삼아 과감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 전구성원과 재단의 눈물겨운 의지의 산물이다.

또한 2000년 3월에는 총 55억 원을 투자해 삼성 SDS와 공동으로 개발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하여 한층 성숙한 정보 인프라를 이루었으며, 현재 WEB 및 C/S 방식의 편의성 및 효율성이 고려된 최적의 시스템으로서 국내 대학가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SKKU의 시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미 산학연구동과 제 2기 기숙사 신축 공사가 시작됐으며 수년 내에 법학관과 약학관, 게스트 하우스 등이 캠퍼스 진용을 변화시킬 것이다.

최고의 교수진이 최고의 학생을 배출한다

'최고의 교수진만이 최고의 학생을 배출할 수 있고 최고의 대학을 만들 수 있다'

대학발전의 핵심은 교수의 질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SKKU는 단계적으로 우수 교수를 대폭 충원하고 엄정한 교수업적 평가제도를 시행하며, 강화된 승진 및

재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신입교수 충원에 주력하여 현재 1대 35의 교수 대 학생비율을 2005년까지 1대 25로 낮추며 2010년에는 교수 1인당 학생 15명의 비율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작년 교수승진 심사에서는 승진탈락률이 25.5에 도달해 주요 일간지의 주목을 받는 한편, 한국 교수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던져 준 바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사업 전개 세계적 경쟁력 도전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수 없다.’

SKKU의 특성화 정책은 21세기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중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을 통한 선도분야 집중 육성, 학문영역별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책으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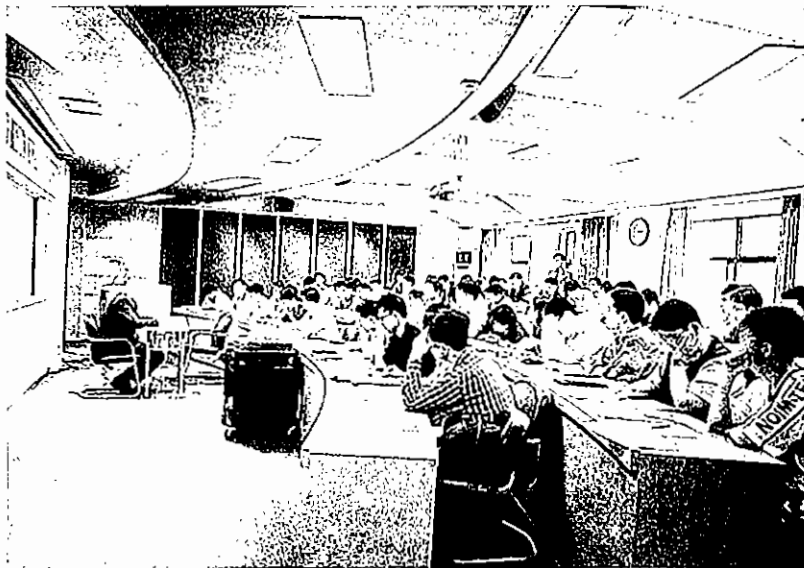
1차년도인 1999년에는 약학부(생명의약학), 첨단 소재 분야의 기능성 고분자 연구팀, 국내 유일의 공인 MBA과정인 경영학부, 경제학과 등 4개 분야를 선정하고, 2차년도인 올해는 동아시아 학 분야, 금속재료공학부, 기계공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를 제 2기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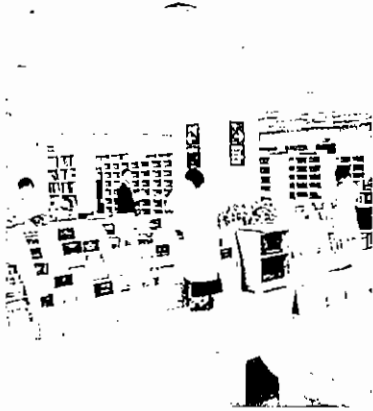
여기에 지난해 두뇌한국 21 사업에서 선정된 7개 ‘BK 21’ 사업단을 추가, 집중 육성정책을 펼침으로써 2010년까지 최소한 5개 학문분야에서 세계 수준을 달성(World’s best 5)하고자 하는 야심찬 목표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학술원을 신설, 국학연구의 메카로 이름 높았던 대동문화연구원을 근간으로 유교문화연구소와 동아시아지역연구소를 신설하여 국내외에 분산돼 있는 국학 및 동아시아학 연구자원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며, 도서관 전문화의 일환으로 고서 D/B작업과 더불어 ‘존경각’이라는 사이버 고전 도서관을 출범시킨 것도 SKKU의 특성화 계획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노력의 한 단면이다.

3품제를 통한 졸업생 품질보증시대 개척

SKKU의 3품제가 물고 온 파장은 실로 대단했다. 1996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3품제, 3품제는 학생들에게 높은 도덕적 가치(인성품), 국제화 마인드(국제품), 정보활용능력(정보품)의 세 가지 기본소양을 가르쳐 전인교육을 시행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진출에 탄탄한 기반을 조성하는 졸업생 품질보증제도이다. 전교생들은 재학중 3품제도와 연계된 교과목을 이수한 후 인증시험에 응시하거나 외부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를 통해 인증을 취득





할 수 있다. 인증취득자는 3품의 각 분야에 서 우수한 수준에 도달한 학생임을.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을 시는 '특품'이라는 별도의 인증을

SKKU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게 된다.

지난해 졸업생 사정에서 미 이수자 21명에 대해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는 엄중한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국내 언론사는 이를 다루어 보도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전국 대학과 여러 기업체에까지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SKKU는 앞으로 이 3품제를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세계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춰 좀더 기준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선발·장학제도를 발굴, 시행한 결과 최근 본교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예로 2000학년도 신입생 선

발 결과 신생 의과대의 경우 전국 계열별 석차 0.1% 내의 최고 수준 학생들이 입학했고, 전체 입학생의 평균 수능 석차가 4% 이내로 확인됐다.

'국내 최고 사학(私學)'의 주춧돌로 성장하는 성균관대

변화의 속도를 감지하기도 전에 또 다른 변화가 불어 닥치는 21세기가 시작됐다. 지식정보화시대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세상은 또다시 어떤 시대가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이란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21세기는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 경쟁의 출발선상에 강력한 변화를 실천하는 SKKU가 있다. 'VISION 2010'의 잘 짜여진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보다 한층 더 힘차게 추진한다면 분명 SKKU는 국내 최고 사학으로 우뚝 설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냄은 물론 미래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있어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SK**